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

- 경기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

정명진* · 김상조** ·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산업안전학전공 · **한국안전기술연구원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afety Management about Small Sized Enterprises

- Focused on to Small Enterprises in Kyunggi Area -

Myeong Jin Jeong* · Sang Jo Kim** · Myeong Gu Lee*

*Dept.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Engineering, Eulji University

**Korea Safet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Abstract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small sized enterprise is very important to decrease industrial disaster in the area of industry. On this research, to give the effective measures to decrease industrial disaster, we administered the workplaces in Kyunggi area to search actual condition of industrial disaster and to disclose a link between industrial and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The results show industrial accident characteristics of small sized enterprises in Kyunggi area. So it is shows that we need to put in effective safety political measures to small sized enterprises.

Keywords : Safety Management, Industrial Accident, Small Sized Enterprises

1. 서론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에 제정된 이래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재해발생빈도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7년부터 30~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면제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된 2000년 7월 1일 이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전체의 70%대를 차지하고 있다.[1~4]

2006년도의 경우 전체 재해율은 0.77%이나 50인 미만의 사업장 재해율은 1.13%이며, 재해자수는 66,072명으로 전체 재해자수의 73.5%, 사망자수는 1,401명으로 전체사망자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50

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의 비중은 69.9%이었으나 2006년에는 오히려 3.6%가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중·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예방대책수립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5,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발생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에 근거하여 제조업 중심의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재해다발 10대 취약 사업장, 위험기계기구를 보유한 사업장, 위험요인이 있는 사업장, 전년도 재해발생 사업장, 기타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산업안전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7,8]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변화, 작업환경개선 및 안정보건시설의 확충 등으로 근로자의 재해를 감소·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매년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분석 자료와 안전관리 국고대행사업에 참여하는 경기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분석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재해예방 대책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한다.[5, 6, 9]

2. 연구방법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재해현황을 파악하고자,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해예방전문기관인 한국안전기술연구원이 안전관리기술지원 국고대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현황, 월별재해현황, 근속기간별 재해현황, 산업별재해현황, 기인물별 재해현황, 발생형태별 재해현황, 상해종류별 재해현황, 상해부위별 재해현황, 각종 재해원인 등을 분석하였으며, 전국적인 각종 재해 통계 분석은 노동부에서 발간한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의 산업재해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5,6,9,10]

한편, 재해분석 대상 사업장은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등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181개사 1,760명, 2005년에는 181개사 1,823명, 2006년에는 186개사 1,7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안전관리기술지원 국고대행이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50인 미만 사업장중 유해·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을 통해 산업안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8]

3. 연구결과

3.1 사업장 규모별 재해분석

매년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재해율 분석자료 중 최근 3년간 재해 발생현황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재해율은 전사업장 재해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율은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2배이상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점차적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재해율은 감소하

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마다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장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취업기피현상으로 여성,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과 노동시장유연화로 임시·일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축소되지 않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기반을 갖추기가 어려워 산업재해발생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예방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하겠다.

<표 1>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현황

규모		전사업장	50인미만	50인이상
2006년	근로자수	11,688,797	5,837,750	5,851,047
	재해자수	89,910	66,072	23,838
	재해율(%)	0.77	1.13	0.41
	점유율(%)	100	73.5	26.5
2005년	근로자수	11,059,193	5,102,035	5,957,158
	재해자수	85,411	59,742	25,669
	재해율(%)	0.77	1.17	0.43
	점유율(%)	100	69.9	30.1
2004년	근로자수	10,473,090	5,081,362	5,391,728
	재해자수	88,874	60,423	28,451
	재해율(%)	0.85	1.19	0.53
	점유율(%)	100	68.0	32.0

전국 50인미만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재해 발생현황과 한국안전기술연구원이 대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경기지역 국고대행사업장의 재해 발생현황(편이상 이 논문에서는 경기지역 분석대상 사업장으로 표기:경기*)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대상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국평균재해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안전관리기술지원 국고대행사업이 제조업 중심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 특히 취약계층 고용 제조업 사업장, 전년도 재해발생 사업장, 금속·기계·화학 등 재해다발 10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재해율이 5~49인 사업장의 재해율보다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재해율과 경기지역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이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자 및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보건 의식이 미흡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발생현황

규모		2004년		2005년		2006년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체	근로자수	5,081,362	1,760	5,102,035	1,823	5,837,750	1,788
	재해자수	60,423	78	59,742	21	66,072	32
	재해율(%)	1.19	4.43	1.17	1.15	1.13	1.79
	점유율(%)	100	100	100	100	100	100
5인 미만	근로자수	1,346,245	161	1,417,972	206	1,641,119	151
	재해자수	19,562	51	21,604	1	24,808	7
	재해율(%)	1.45	31.68	1.52	0.49	1.51	4.64
	점유율(%)	32.38	65.38	36.16	4.76	37.55	21.88
5-49인	근로자수	3,735,117	1,599	3,684,063	1,617	4,196,631	1,637
	재해자수	40,861	27	38,138	20	41,264	25
	재해율(%)	1.09	1.69	1.04	1.24	0.98	1.53
	점유율(%)	67.62	34.62	63.84	95.24	62.45	78.12

3.2 특성별 재해분석

월별 재해현황을 분석해 보면 <표 3>과 같다.

전국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연중 꾸준한 재해발생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5월에서 9월까지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재해발생이 많으며, 이중 6월에 재해가 가장 많았다. 1월에서 4월까지 그리고 10월에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이 적으며 2월에 재해가 가장 적었다.

한편, 경기지역 분석대상 사업장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3월과 4월, 6월, 8월에서 10월까지가 재해발생이 많

고, 상대적으로 11월과 12월, 5월에서 7월까지가 재해발생이 적었다. 전국 사업장과 경기지역 분석 대상 사업장 모두 6월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상당수의 안전사고는 계절적으로 근무기강이 느슨해지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는 시기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은 근로자의 하계휴가를 앞두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우며, 2월에 재해발생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수가 적은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월별 재해현황(건수)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06년	89,910	6,831	6,500	7,473	6,830	7,418	8,254	7,601	8,084	8,280	6,622	8,754	7,264
	05년	85,411	6,767	5,082	6,479	6,645	7,616	7,643	7,788	7,134	6,872	6,958	8,425	8,002
	04년	88,874	6,466	6,683	7,500	6,607	7,496	8,526	7,908	6,859	7,041	7,099	8,770	7,919
	합계	264,195	20,064	18,265	21,452	20,082	22,530	24,423	23,297	22,077	22,193	20,679	25,949	23,185
경기°	06년	32	2	1	10	4	3	4	1	3	3	1	-	-
	05년	21	2	1	2	3	1	5	1	1	2	2	1	-
	04년	78	2	4	6	10	3	9	3	9	11	10	6	5
	합계	131	6	6	18	17	7	18	5	13	16	13	7	5

<표 4>는 근속기간별 재해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사업장의 경우 근속1년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재해의 5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개월 미만이 47.4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역 분석 대상 사업장의 경우 근속 1년미만의 근로자가 전체재해의 62.6%로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6개월 미만이 32.0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입사 1년 미만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미숙련 근로자의 재해율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숙련 인력의 이탈이 빈번하며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및 작업환경의 미비로 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근속기간별 재해현황

			총계	6개월 미만	6-1년 미만	1년 이상
2006년	전국	재해자수	89,910	44,168	9,597	36,145
		점유율(%)	100	49.12	10.67	40.20
	경기°	재해자수	32	7	6	19
		점유율(%)	100	21.88	18.75	59.38
2005년	전국	재해자수	85,411	39,813	8,636	36,962
		점유율(%)	100	46.61	10.11	43.28
	경기°	재해자수	21	7	7	7
		점유율(%)	100	33.33	33.33	33.33
2004년	전국	재해자수	88,874	41,450	9,142	38,282
		점유율(%)	100	46.64	10.29	43.07
	경기°	재해자수	78	28	27	23
		점유율(%)	100	35.90	34.62	29.49
합계	전국	재해자수	264,195	125,431	27,375	111,389
		점유율(%)	100	47.48	10.36	42.16
	경기°	재해자수	131	42	40	49
		점유율(%)	100	32.06	30.53	37.40

<표 5>는 산업별 재해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6>은 경기지역 분석대상 사업장의 기인물별 재해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표에서 보면, 경기지역 분석대상사업장 재해의 특징은 목제품 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 기타 제조업 등 분야에서 재해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기인물별 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일반동력기계에 의한 재해발생이 전체의 28.2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고위험 업종이며, 주로 보유하고 있는 설비가 재해발생시 강도율이 높을 수 있는 기계·기구들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등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일지라도 설계·제작시 근원적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업종별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및 사용방법을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 산업별 재해율

	2004년		2005년		2006년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제조업 소계	1.28	4.43	1.18	1.15	1.18	1.79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4.18	18.18	-	-	-	-
목제품 제조업	2.96	16.13	3.04	7.78	3.14	6.42
인쇄업	1.00	33.33	-	-	-	-
화학제품제조업	1.11	16.00	1.11	10.00	1.07	8.33
전자제품제조업	0.22	22.22	-	-	-	-
유리제조업	1.88	15.79	1.46	7.14	-	-
섬유제품제조업	0.72	20.00	0.70	5.56	-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	2.90	21.67	2.84	13.04	2.88	18.35
도금업	1.69	25.00	-	-	-	-
기계기구제조업	1.79	24.00	1.53	8.33	1.56	3.08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업	0.72	28.57	-	-	0.61	3.08
식품제조업	1.15	13.73	1.19	6.67	1.23	3.08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1.87	50.00	-	-	-	-
계량광학기 및 정밀	0.57	50.00	-	-	-	-
제본 또는 인쇄물	1.49	33.33	-	-	-	-
기타 제조업	1.66	18.52	1.53	8.00	1.68	10.53

<표 6> 기인물별 재해발생현황(건수)

	계	프레스 전단기	압력 용기	운반 기계	목공 기계	일반동 력기계	원재재	크레인 승강기	화학 설비	전기 설비	기타
2006년	32	1	-	5	4	8	7	1	-	-	8
2005년	21	3	-	2	3	6	1	-	-	-	6
2004년	78	10	-	4	3	23	16	3	-	1	18
합계	131	14	-	11	10	37	24	4	-	1	32

<표 7> 발생형태별 재해현황(건수)

		총계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 비래	무리한 동작	기타
2006년	전국	79,675	16,649	16,305	11,687	10,907	6,632	3,131	14,364
	경기°	32	11	4	6	1	4	3	3
2005년	전국	77,916	16,557	15,071	10,814	9,125	6,454	6,535	13,360
	경기°	21	12	1	1	-	1	1	5
2004년	전국	88,874	17,395	15,159	11,676	9,371	7,343	7,149	20,781
	경기°	78	37	7	5	2	3	16	8
전국합계(3년간)		246,465	50,601	46,535	34,177	29,403	20,429	16,815	48,505
경기°합계(3년간)		131	60	12	12	3	8	20	16

<표 7>은 발생형태별 재해현황을 나타낸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등 5대 재래형 산업재해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70%를 상회하고 있어, 후진적 재해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생형태별 재해유형중 5대 재래형 재해가 3년 평균 73.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분석 대상 사업장의 3년 평균 5대 재래형 재해도 역시 72.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래형 재해가 감소되지 않는 것은 안전수칙 위반, 안전지식부족, 경험미숙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표 8>과 <표 9>는 경기지역 분석대상 사업장의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별 재해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상해종류로는 골절이 3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해부위로는 손가락이 44.27%로 가장 많다.

3.3 원인별 재해분석

<표 10>과 <표 11>은 경기지역 분석대상 사업장의 재해원인을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재해원인중 불안전한 상태의 경우 방호장치의 결함이 전체의 2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안전한 행동의 경우 불안전한 상태방치가 전체의 51.1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는 경기지역 분석 대상 사업장의 관리적 원인별 재해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원인이 교육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38.93%이며, 이와 비슷하게 기술적 원인이 38.17%로 나타나고 있고, 관리적 원인이 22.90%를 나타내고 있다.

<표 12>에 따르면 교육적 원인과 관리적 원인이 전체 원인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가장 큰 요인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 부족을 첫째로 볼 수 있겠다. 즉,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교육과 관리만을 통해서도 소규모사업장 상당부분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표 8>상해종류별재해현황(건수)

	계	절상	골절	타박상	화상	기타
06년	32	4	19	-	-	9
05년	21	6	6	-	1	8
04년	78	26	26	-	-	26
합계	131	36	51	-	1	43

<표 9> 상해부위별 재해현황(건수)

	계	손가락	손	두부	다리	허리	기타
06년	32	10	4	1	11	-	6
05년	21	12	3	1	2	1	2
04년	78	36	4	9	5	13	11
합계	131	58	11	11	18	14	19

<표 10> 재해원인(불안전한 상태, 건수)

	계	방호장치 결함	물자체 결함	배치 및 장소불량	작업 공정 결함	작업환경 결함	기타
2006년	32	9	1	5	9	-	8
2005년	21	6	1	2	7	4	1
2004년	78	22	4	25	13	12	2
합계	131	37	6	32	29	16	11

<표 11> 재해원인(불안전한 행동, 건수)

	계	불안전한 자세동작	불안전한 상태방치	방호장치 기능제거	기계기구 잘못사용	기타
2006년	32	13	17	-	1	-
2005년	21	10	7	4	-	-
2004년	78	25	43	5	5	-
합계	131	48	67	9	6	-

<표 12> 관리적 원인별 재해빈도 및 구성비

원인		2004년 (건수)	2005년 (건수)	2006년 (건수)	합계 (건수)	구성비 (%)
기술적 원인	1. 구조,기계장치,설비불량 2. 구조재료의 부적합 3. 생산방식의 부적당 4. 점검·정비보존 불량 5. 기타	35	5	10	50	38.17
교육적 원인	1. 안전지식의 부족 2. 안전수칙의 오해 3. 경험·훈련의 미숙 4. 작업방법의 교육불충분 5. 위험작업의 교육불충분 6. 기타	26	12	13	51	38.93
관리적 원인	1. 안전관리조직 결함 2. 작업수칙 미제정 3. 작업준비 불충분 4. 인원배치 부적당 5. 작업지시 부적당 6. 기타	17	4	9	30	22.90
합계(건수, %)		78	21	32	131	100

4. 결론

2006년도의 경우 전체 재해율은 0.77%이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전체 재해율은 1.13%이며, 재해자수는 66,072명으로 전체 재해자수의 73.5%, 사망자수는

1,40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해자 비중으로 보아 전년(69.9%) 대비 3.6%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의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를 볼 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지않는한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들어 세계화 · 정보화를 통해 거대기업이 조직의 유연성을 이유로 작은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분화하고, 1인 또는 소규모 기업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규모사업장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소규모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을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안전은 제3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취업기피현상으로 여성,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과 노동시장유연화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축소되지 않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갖추기가 어려워 산업재해발생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분석 자료와 안전관리 국고대행사업에 참여하는 경기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분석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경기지역 분석 대상 사업장의 일반적인 재해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3년평균 재해율이 전국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2.44%를 보였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3년 평균 재해율은 11.39%를 보여주고 있다. 1년중 6월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재해의 62.6%로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② 산업별로는 화학제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 기타 제조업 분야에서 3년 연속 높은 재해율은 보이고 있으며, 기인물로는 일반동력기계에 의한 재해가 전체의 28.84%를 차지하고 있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5대 재래형 재해인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재해가 72.52%를 차지하고 있고, 상해종류로는 골절이 3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해부위로는 손가락이 44.27%로 가장 많다.

③ 재해원인으로는 불안전한 상태의 경우 방호장치의 결함이 28.24%, 불안전한 행동의 경우 불안전한 상태의 방치가 5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적 원인별로 구분하는 경우 교육적원인과 관리적 원인이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취약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안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부는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 안전관리기술지원 국고대행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사업에 대한 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번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한시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기술지원 국고대행사업같은 경우 현재 연 4회 방문 기술지원을 연 6회이상 방문 기술지원을 하는 등 방문횟수와 관심도를 높여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확대가 있어야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업재해 예방이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이 아닌 이윤 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 발생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협력업체에 대하여 모기업 주도하에 협력업체 안전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산재예방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소규모사업장 경영자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해·위험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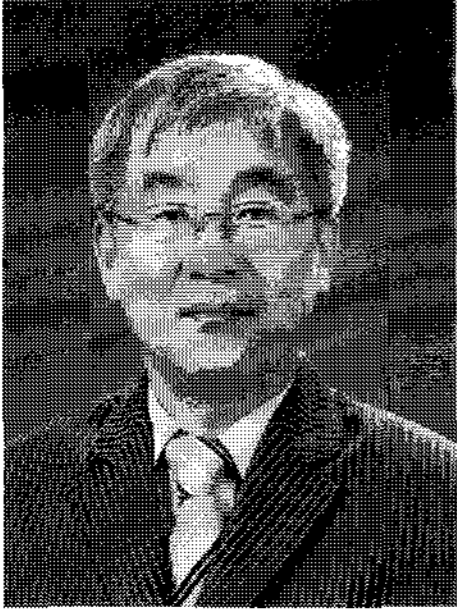
최근 산업형태의 다양화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우 위험한 기계·기구가 날로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설계기술의 보급 및 설비별 안전작업매뉴얼 개발 보급 등이 시급하다 하겠다.

5. 참고 문헌

- [1] 유인수, 김병석, 권백순, 강경식,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7권 제4호 (2005) : 1-12
- [2] 김병석, 임재동,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7권 제5호 (2005) : 31-41
- [3] 이규남, “5인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와 대책”, 안전보건, 136(2000) : 74-81
- [4] 한국산업안전평가원, 2006산업안전보건총람, (2006)
- [5] 노동부, 2005산업재해분석
- [6] 노동부, 2006년 산업재해 현황, (2007)
- [7]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령집, (2004)
- [8]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net>
- [9] 노동부, 2004산업재해분석
- [10] 유재환 외 5인 공역, 安全管理, (1998) : 129-153.

저 자 소 개

정 명 진



현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과학부 보건산업안전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 관심분야는 기계안전분야 및 제조업체 안전관리, 산업안전 제도·정책 등.

주소: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212 을지대학교 보건환경공학부 보건산업안전학전공

이 명 구



현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과학부 보건산업안전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 관심분야는 건설안전분야 및 산업안전 제도·정책 등.

주소: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212 을지대학교 보건환경과학부 보건산업안전학전공

김 상 조



현재 한국안전기술연구원(주)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인천전문대학 기계과 졸업. 관심분야는 제조업체 안전관리 및 산업안전 제도·정책 등.

주소: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1-18 한국안전기술연구원(주)